

[4] Ovum, "UK(interconnect country analysis)", 2004. 3

Nextel의 주파수 재배치 관련 논쟁

통신방송연구실 연구원 권영주
(T. 570-4164, milip@kisdi.re.kr)

1. 현 황

가. FCC에 대한 Nextel의 제안

Nextel은 2003년 8월 FCC에 공공서비스와의 주파수 간섭 및 자사의 주파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1) 800MHz 대역의 주파수 대역에 분포하고 있는 파출소와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의 주파수를 이전하여, 여유 주파수 중 일부를 Nextel에 배정해준다면 그 반대급부로 8억 5천만달러(약 1조원)의 이전 비용을 부담할 것, 2) Nextel이 700MHz 대역의 주파수 4MHz와 900MHz 대역의 주파수 총 10MHz를 반납하는 반대급부로 FCC가 Nextel에게 1.9GHz 대역의 주파수를 10MHz를 배정해 줄 것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Nextel의 위와 같은 제의는 아직 의결을 하지 못한 채 보류 중에 있다.

나. 경쟁업체 반응

Verizon, Cingular 등의 경쟁업체는 위와 관련하여 1) 800MHz 대역의 재배치 비용으로 지불할 8억 5천만달러는 희소한 자원이 무상으로 공급된 수준과 다름없다며, Nextel의 해당 재배치 비용은 최소 18억 달러 규모가 되어야 하고, 2) 700MHz와 900MHz의 반납될 주파수와 경제적 가치가 상응한 주파수 대역은 1.9GHz보다 수요가 적은 2.1GHz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FCC에 로비활동을 벌였다. 이에 FCC가 2년여 시간동안 해결점을 모색하던 가운데 Nextel 주파수 관련 표결을 앞둔 2004년 5월경, FCC 의장이 Verizon 등이 제시한 2.1GHz 이전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 2.1GHz 배정방안에 대한 Nextel의 대응

경쟁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Nextel은 2.1GHz로의 전환 의견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제기하였다. Nextel의 재배치 계획은 1) 소방, 관재 등의 공공 서비스와의 간섭을 피하고자 하는 의의로 제안한 것이기에, 향후 실시된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이동통신시장의 음성부문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며, 2) 2.1GHz는 기존 이동통신업체에 의해 과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므로, 차세

대통신 등의 데이터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9GHz의 배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한편 기존 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매방식에 의한 주파수 면허 획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FCC는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경매 실시 유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며 경매에 의한 주파수 면허 획득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2.1GHz 대역은 70% 가량이 음성 위주의 기존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분배되어 있기에 여유 주파수 대역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대역이 분배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 결 론

위와 같은 현상은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을 드러내는 일례로 볼 수가 있다. Nextel이 재배치를 제안한 800MHz은 정부용 주파수 이외에 대다수 이동통신업체가 진입하여 있어 간섭 및 통화적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용 주파수의 상업용 이전 및 주파수 교환 등 Nextel의 전략이 경쟁업체에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 대두된 미국 이동통신시장은, 업자간 경쟁의 첫 관문이 국내와 같이 사업자 확보가 아닌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확보로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주파수 정책에 있어 특정 대역 주파수 자원의 정량적 가치에 대한 분석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는 선례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1] Reuters, "Nextel rejects alternative to its spectrum plan", May 11, 2004
- [2] The Washington post, "FCC Backs Off Nextel Plan to New Spectrum", May 21, 2004
- [3] USA Today, "Nextel says they won't move from spectrum spot", May 25, 2004

일본과 영국의 장기증분원가 모형의 수정사항 발표

공정경쟁연구실 연구원 이경석
(T. 570-4072, kysjin@kisdire.kr)

1. 개 요

접속료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에 있어 장기증분원가(이하 LRIC) 등 미래지향적비